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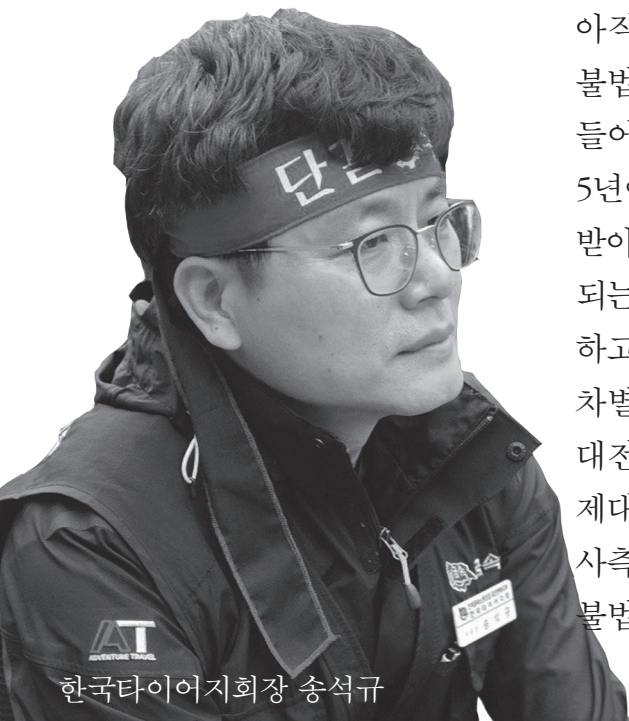
노조법 개악되면 민주노조 끝장납니다! 총파업으로 막아냅시다!

노조사무실 쟁취하는데 5년!

국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멈춰있는 상태지만, 언제라도 열리기만 하면 노조법을 비롯해 각종 노동법들이 개악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노조법이 개악되면 한국타이어 같은 악질 자본들은 등에 날개를 단 것처럼 더 활개칠 겁니다.

한국타이어는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어용노조가 있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암흑의 역사를 깨고자 2014년 11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를 설립했습니다. 지회를 설립하고 벌써 5년차이지만, 아직도 현장에 노조 사무실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회사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5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대법원에서 노조사무실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한국타이어 자본은 어쩔 수 없이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조합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석자리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민주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차별없는 노조사무실 쟁취와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5월 13일부터 대전공장, 금산공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측 때문에 천막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조합원 40여명에게 징계장을 날렸습니다. 불법, 편법 모두 동원해서라도 민주노조 활동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국타이어지회장 송석규



노조활동을 회사 허락받으라고요?

한국타이어 자본은 사내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선전활동도 취업규칙 들먹이면서 회사 허락없이 할 수 없다고 징계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징계는 부당징계였고, 법원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산별노조 간부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선전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이런 악질 자본들이 판을 치는데, 노조법이 개악되면 불보듯 뻔합니다. 금속노조, 지부 간부들은 한국타이어에 한발짝도 들일 수 없고, 지회 간부들은 쫓아지는 부당징계, 부당해고로 고통받을 겁니다. 당연히 지회의 활동도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악 저지! 민주노조 사수!

노조법이 개악되면 산별노조 활동은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타이어 내에서도 민주노조 활동을 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50년이 넘는 시절 동안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권리도 다 뺏긴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노조를 통해서 현장에서 투쟁하며 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노조법 개악으로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타이어지회가 앞장서서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노조의 생존을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 **송석규**

총파업! 총력투쟁!

모든 걸 걸고 싸웁시다!